

하박국 강해⑨ “주께 대한 소문이 놀랍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

1. 시기오눗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2.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은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3. 하나님이 데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4.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5.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6.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었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하박국의 결론이 드러나는 3장은 2절만 기도이고, 나머지는 전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미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지난 며칠 동안 여러 가지 ‘정죄’에 대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불의와 강포에 대하여, 술 취함과 우상숭배에 대하여 분명하게 심판하시겠다는 무시무시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심판들이 하박국에게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심판으로, 누구에게는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의인을 살리시기 위한 방편”으로 믿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러한 구원의 약속을 받은 하박국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장면입니다. 아직은 ‘축복된 상황이 아니다’라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약속을 받은 하박국은 맨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린 것입니다. 아직도 불법과 불의는 시정되지 않았고, 여전히 약한 자들은 지배층에 의해 억압과 착취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감사와 찬미를 여호와께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기도회를 하면서 ‘회복’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아직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가 영광스러운 자입니다.

이제 3장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1. 시기오눗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기에서 시기오눗이라는 말이 무엇을 지칭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19절에 나타난 ‘수금’이라는 말과 동일시합니다. 다시 말하면,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는 구체적인 기도가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박국의 기도’라고 되어 있지만, 2절을 제외하고는 찬미와 감사의 노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것은 말씀 전체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심판’으로 볼 것인지, ‘구원’으로 볼 것인지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오래 전 청년들과 필리핀 지역 단기 선교를 하면서 ‘아이타족’이라는 원주민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필리핀의 Subic bay에서 지프니를 타고 두 시간을 가서 다시 내려서 배를 탄 다음에도 한참을 걸어 산으로 가야 만날 수 있는 부족들이었습니다. 출발하기 전, 우리를 안내하는 선교사님이 꼭 손수건을 준비해 가라고 주의를 줍니다. 그곳은 1992년에 화산이 폭발한 지역인데 아직도 화산재가 가득해서 걸을 때마다 먼지가 많이 나니 입을 가려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 길을 걸으면서 참 인상적이었던 것은, 폭발한 당시에 그곳에 살고 있던 아이타족 중에 절반은 죽고 절반은 살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그 지역에서는 1992년 이전부터 한국의 선교사들이 들어가 말씀을 전하고 있었답니다. 당시 화산 폭발이 있을 때, 선교사들은 정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주민들을 데리고 내려오려 했지만 실패 했다고 합니다. 화산이 멈춘 후 마을에 들어갔더니, 어떤 이는 동굴에 피신한 채로 살이 다 녹아서 뼈만 발견되고, 어떤 이들은 돼지와 소를 끌어안고 죽은 시체로 발견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화산이 폭발하자마자 피신을 했으면 살 수 있었는데, 그들의 소중한 재산인 소와 돼지를 버리고 갈 수 없어 끌어안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왜 어떤 이들에게는 화산폭발의 예고가 구원의 메시지가 되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죽음을 알리는 전주곡이 되었을까요?

하박국의 말씀, 그의 노래와 기도가 지금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메시지로 들리고 있나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죽음의 전주곡인가요?

부흥에 대한 열망. . .

아마도 하박국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 2절 말씀이 아닐까요?
하박국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게 되자 그의 내면에서부터 일어났던 불같은 열망이 무엇
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

2.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이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놀람에 대한 이유는 주께 대한 ‘소문(fame)’ 때문입니다. 이 소문을 리빙 바이블(living bible)
에서는 “your report”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2장에서 계속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응답의 내용이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놀랐다’ (히브리어 야레)는 말은:

- 1) 두려움의 감정, 2) 감정적 반응에 대한 강조 없이 악에 대한 지적인 예측, 3) 존경 혹은 경외,
- 4) 공의로운 행위 혹은 경건, 5) 공식적인 종교 예배 등의 뜻입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한 공포와 하나님이 얼마나 공로우신 분이신가에 대한 경외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박국의 전환이 시작되는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항의와 의문은 이제 경외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의 겸손한 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굉장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의 기도가 성숙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의 가슴 속에 들어오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니 그에게 찾아온 열망입니다.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지금까지 하박국의 고민은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세상,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 .

우리 신앙의 성숙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닐까요?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핵심이 바로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듯이 말입니다.

이 기도야 말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정도를 벗어나지 않게 하는 핵심입니다.

우리 신앙에 사라져 버린 기쁨은 결국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있었다면 평안의 회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 시작하면서 찾아오는 것이죠.

하박국의 신앙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자 그의 기도가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의 입에서 ‘부흥’이라는 말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가 불의하다고 생각하고 무섭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응답이 ‘수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부흥이라는 확신이 생긴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성장하려면 희망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 두 주 동안 갖가지 가장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박국의 절망과 유대의 비참함을 같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희망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 희망은 하박국 전체의 주제가 되는 2장 4절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고백하는 자들에게만 나올 수 있는 희망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의인되었다고 하는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려 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년 내에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기에서 심판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들에게서 엔돌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역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기다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근본적인 신앙의 모습이 바뀌는 놀라운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고 선언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통치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나 통치를 제한하거나 무효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십니다.”

“인생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며,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분의 찬란한 영광의 빛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또 하나의 사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부흥이다!

하박국이 부흥을 선포하는 계기가 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과 세상이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부터입니다. 저는 이것을 신앙의 ‘혁신’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니 비로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공의로우시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유치원의 전서문(실화)

가을 운동회에 참가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전서합니다

하나. 무조건 열심히 한다

하나. 넘어져도 울지 않는다

하나. 엄마가 반칙을 해도 따라하지 않는다

하나. 이긴 팀에 큰 박수를 보낸다

하나. 진 팀을 놀리지 않는다

원칙과 공의는 ‘내 맘대로’ 하지 않을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교만은 자기 맘대로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겸손’은 내 맘대로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죠.

‘겸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보이면 비전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기대가 생깁니다.

그의 겸손한 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흥에 대한 기대는 지금 하박국과 그 민족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 고난, 고통, 불의한 일들이 충분히 의미가 있는 일로 받아들여지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부흥’의 영어 단어가 ‘revival’입니다.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규칙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규칙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성경공부를 인도하다 은혜를 받았던 내용을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구약개관을 강의하며 ‘소유와 율법’을 공부할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요단강을 건너야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택을 거두는 시기’에 언약궤를 매고 요단강을 건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산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인데, 그 명령에 순종하기로 작정했을 때 그들을 부흥을 경험합니다. 물에 발을 담갔으나 물속에서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부흥은 아무 때나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핍에서 부흥을 경험합니다.

절실한 갈망에서 부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홍수로 범람하는 요단강에 발을 담그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언젠가 집회에 참석해서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도에 대한 갈망을 갖게 된 사람이 이야기입니다. CBS의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만든 한 장로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분은 대학에서 동양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었는데, 졸업논문이 논문을 “인간의 운명이 사주에 의해 결정된다” 라는 주제로 준비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서 사주를 봐 주면 정말 기가 막히게 들어맞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점점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기를 ‘인간의 운명이란 정해져 있는 것이구나. . .’

그러던 어느 날, 한 다방에서 혼자 앉아있는 아주머니에게 자신이 논문을 쓰는 학생임을 밝히고 사주팔자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되어 있을 사주”가 나오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신 있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없으시죠?”

그랬더니 아 아줌마가 “아니요 남편이 있는데요!”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게 된 생각이 사주가 안 맞을 수도 있구나, 그리고 계속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사주팔자와 운명이 안 맞는 사람이 자꾸 나오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의문이 들더라는 것이지요. 이 사주팔자가 안 맞는 사람들의 이유가 무엇일까 하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모두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사주팔자가 맞지를 않는가 조사하기 위해 예배를 참석하다가 2년 만에 중생의 체험을 하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건딜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운명과 억압으로부터 해방된다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고 나서는 건딜 수 없는 burning desire가 생긴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상식이 포기되지 않는 한 우리들에게서 큰 기적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큰 소망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하박국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할 때 그에게 큰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유대가 고통 중에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부흥”에 대한 비전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큰 고통과 상식을 뛰어넘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할 때,

“주여 수년 내에 이루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을 때 놀라운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부흥을 갈구하는 하박국의 기도가 참 가슴 벅차고 소망적이지 않았겠습니까?

역사상 가장 절망적이라고 생각하는 때에 가장 놀라운 부흥의 비전을 보았으니 말입니다.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지만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그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의 마지막 신앙고백으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